무역의 세계화

유민우

# 개요

먼 과거, 상업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것은 생산자가 모두 사용하였다. 하지만 잉여 자원이 늘어남에 따라 상업이 발달하여 상품을 생산자 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가치와 교환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하였다.

위 사례가 바로 자급적 산업에서 상업적 산업으로 형태가 변화한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변화’ 단원에서는 산업의 형태 변화와 생산과 소비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변화는 국가간 무역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예외나 다른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 무역

철수가 자신의 텐트만 가지고 캠핑장에 갔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캠핑 용품을 파는 사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등이었다. 영희 또한 캠핑장에 왔다. 텐트와 음식을 가지고왔지만 텐트를 칠 줄 모른다.

철수는 영희의 텐트를 설치해주기로 하고, 음식을 소분해갔다.

위 예시에서 보았듯이, 철수와 영희는 자원의 교환으로 서로 자신들의 화폐를 아꼈다. 이렇게, 합리적인 무역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곡물과 과일을 수입할 수 있는 이유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도시화, 기술 진보는 세계적인 교류를 낳았다. 그와 더불어 데이비드 리카도의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과 실제로 그 시민들에게 실효성이 처참하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자국 상품에 지나치게 보호적인 태도로 상품을 수출입하지 않게 되었다.

#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생산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키울려면 온도 조절에 돈이 더 많이 들 것이나, 필리핀에서는 굳이 다른 조건이 필요없다. 그곳에서 우리나라로 바나나를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할때의 이익이 크다면, 그것이 무역을 통한 이득이겠다. 앞으로 말할 산업은 농업인데, 생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이다.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해외에 자신들의 상품을 더욱 수출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무역은 곧 폭발적인 시장 크기 증가이다. 따라서 더 많은 수요에 맞춰 더 많은 생산 능력이 사업주에게는 필요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 대량 생산에 발맞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기도 하였다. 1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것 이다. 이것이 바로 농업 생산의 기업화이며, 시장 변화에 맞춘, 결과적으로 **기업적 농업**이 시작된 것 이다.

#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

기업적 농업으로 다양한 상품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부가적으로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상품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선두적이자, 오직 자신들의 환경적 특성에 매우 적합한 작물만 수출하던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붙었다. 이미 공급 경쟁에서 밀려난 사업주들은 자신들도 기업화를 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대량으로 같은 품종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아예 재배하는 작물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이미 가격 경쟁이나 시장 점유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기존 상품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1. 경쟁력 확보 :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낮추기
2. 공급 경쟁에서 밀려난 경우
   1. 경쟁력 확보 : 다른 수요에 맞추어 판매 상품 변경

# 기업적 농업, 불러온 문제들과 수요 증가와 변화

다양한 이유에 의해 상품들의 원산지는 바뀌어왔다. 기존에는 쌀을 국내에서 생산하였고 그 소비자들은 자국민이였다. 수입할때 더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자유무역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때 수입한 쌀이 훨씬 저렴하므로 쌀을 수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국내 쌀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적어지니 그들은 다른 것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쌀 생산업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값싼 상품의 유혹에 이끌려 마구잡이로 수입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쌀을 의존하는 국가가 되어버렸다. 모든 나라가 서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끝까지 간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가령 더 싼 상품에 관세를 더욱 붙여 국내산 상품과 다를바 없게 만들거나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 있다.

선진국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갔다. 이 말은 더욱 많은 돈을 누군가가 수입한 무언가에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수요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서구권 음식의 원재료 수요는 높아지지만, 쌀의 전체적인 수요는 줄어들었다. 아시안 중에 쌀 대신 빵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구권 **문화 보급이 불러온 수요 변화**이다.

# 기업 시설 위치의 변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값싼 인력이 밀집된 곳에는 생산 공장을, 고급 인력이 밀집된 곳에는 연구소를, 대부분의 정보와 자본이 오가는 곳에는 회사의 심장인 본사가 위치한다. 앞서 말한 무역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것들은 경영 안정성을 위하여 여러 국가에 법인을 두기도 한다.

#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블록의 설치

경제 블록이란 그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배타적인, 그에 속한 국가들의 기업 사이 경쟁을 도모하여 경제 교류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어떠한 단체이다. 이로써 너무나 큰 기업이 그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약간의 보호무역적 조치로 보이기는 하나, 강대국 기업의 진출로 다른 기업들의 성장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